

필암서원~홍길동 생가 한 길로... 10월엔 명품 숲길 변신



아늑한 숲속 풍경의 옛 고갯길.

장성군에 최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장성 필암서원과 홍길동 테마파크를 연결하는 '매실마을 둘레길 조성사업'이 준비 기간을 거쳐 착공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제 막 길을 내기 시작한 시점이라 다소 이르긴 하지만, 장성을 대표하는 두 명소가 하나의 길로 연결된다는 사실 만으로도 신발끈을 조여 댄 이유는 충분했다. 미리 가 본 매실마을 둘레길의 고즈넉한 풍경을 소개한다.

◇옛 고갯길 따라 산행 시작... 아늑한 숲 풍경
매실마을 둘레길은 황룡면 맥호리 매실마을에서 시작해 필암서원 방면 오투스토리 캠핑장 쪽으로 빠져나오는 산길이다. 지도상으로는 옛 고갯길 1km, 기존 숲길 1.4km를 합해 2.4km 정도 된다. 산행임을 감안해 넉넉하게 1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어느 쪽으로 들어가도 상관없었지만, 이름을 따라 맥호리 매실마을에서부터 탐방을 시작하기로 했다. 필암정미소 쪽에서 구석길을 타고 삼봉산을 바라보며 이동하다 보니, 우측으로 마을 입구 '붓바위'가 눈에 들어왔다. 과거 보러 떠난 선비를 그리워하며 기다리던 흰 여우가 그 자리에서 붓모양 돌로 변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눈치 빠른 사람이

황룡면 매실마을~필암서원 방면
장성 대표 두 명소 한길로 연결
2.4km 정비...완주까지 1시간
아치실마을 내려보는 전망 일품
소나무 군락 등 풍광에 절로 힐링

서 우측 청백로를 따라 방향을 꺾으면 둘레길 공사 현장이 바로 눈에 띈다. 이제 막 첫 삽을 떴다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아직은 이렇다 할 편의시설이랄 게 없다. 특히 차를 댈 곳이 마땅치 않았는데, 장성군은 여기에 20면 규모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적당한 장소를 찾아 주차하고 산행을 시작했다. 아직 다들 어지러운 길이다 보니 시작부터 경사가 가파르다. 허벅지에 힘을 쥐서 10분 정도 오르니, 벌써 숨이 차고 이마에 땀이 맺혔다. 진입로이니만큼, 경사를 완만하게 하고 계단과 손잡이용 밧줄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km쯤 이어지는 옛고갯길은 공사 기계가 길을 다진 직후라 붉은 흙이 드러나 있었다. 또 완만한 구간이 드물어 제법 집중해서 걸어야 했다. 20분쯤 걷자 그제야 한숨 돌릴 만한 공간을 찾을 수 있었다. 옛 고갯길이 끝나고 숲길이 시작됐는데, 한결 정돈되고 아늑한 느낌이 들었다.

◇시간이 빛어낸 숲길...풍경 탁월
시간의 힘이랄까. 오랜 세월 쌓여 온 나무와 낙엽 부산물들이 만들어낸 비옥한 흙길을 걸으니, 몸과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듯했다. 머지않아 옛 고갯길 또한 시간의 손길을 거쳐 편안한 보드라운 길로 변할 것이다.
숲길은 산등성이를 따라 나 있어 걷는 중간마다 축령산의 수려한 풍경을 감상하기에 제격이었다. 위치를 잘 잡아서 조경을 꾸민다면, 홍길동 테마파크를 한눈에 담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전망대 조성을 고민해 볼 부분이다.
걸음을 옮기면 울길수록 숲은 깊어졌고, 풀벌레 울음소리는 아득하게 멀어졌다. 은은한 솔 향기에 기분 좋게 고개를 드니 토종 소나무가 군락을 이

루고 있었다. 산림욕 체험공간 같은 곳으로 꾸미기 좋은 장소였다.
숲길 중 가장 높은 지점까지 올라가서 잠시 맘을 식힌 뒤, 남은 길을 마저 걸었다. 경사가 가파른 것이 매실마을 시작점과 유사했다. 필암서원 방면에서 둘레길에 올랐어도 마찬가지로 제법 힘이 들었을 듯했다. 차츰 숲에서 벗어나 농가들이 보이기 시작하며, 둘레길 탐방이 마무리됐다. 애초 예상대로 완주하는 데 1시간가량 소요됐다.

◇완주까지 1시간... 둘레길 조성 10월 준공
장성군 매실마을 둘레길 조성사업은 오는 10월 무렵 준공될 예정이다. 둘레길 개선 및 정비와 승터 등 편의시설 조성,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추진하며 사업비는 총 1억 8000만원이 투입된다.

홍길동 테마파크와 필암서원을 잇는다는 상징성이 더해져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성군은 둘레길이 완성되면 숲 치유, 숲 해설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물론, 이제 막 만들기 시작한 길이므로 보완해야 할 점은 분명히 있다. 특히, 경사로를 안전하고 완만하게 만드는 작업에는 많은 공을 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숲길이란 '둘레길'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걸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

◇홍길동 테마파크, 장성 필암서원 '필수 코스'
매실마을 둘레길에서 나와 차로 5분 거리에 '홍길동 테마파크'가 있다. 역사 속 실존 인물로 알려진 홍길동이 살았던 아치실 마을에 조성된 관광 명소다. 홍길동 생가와 의적들이 머물던 산채 등이 복원돼 있어 가족 단위로 주말을 보내기 좋다.

여름에는 바닷분수가 인기다. 장성군은 주말과 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분수를 가동한다. 휴가철이 절정에 이르는 이달 27일부터 8월 11일까지는 평일에도 운영한다고 하니 기억해 둘 만하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장성 필암서원도 꼭 둘러볼 코스다. 인종 임금의 스승이자 조선 시대 대표 유학자인 허서 김인후 선생을 제창하는 조선 시대 사립 교육기관이다. 인종이 허서 선생에게 직접 그려 하사한 목죽도가 전해지고 있다. 오는 9월부터 11월 사이 체험 행사 '필암서원 가는 길'과 선비축제 '하서와 함께 걷다'가 열릴 예정이다. 다채로운 선비문화 체험과 공연이 마련된다고 하니 벌써 가을이 기다려진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필암서원과 홍길동 테마파크를 연결하는 '매실마을 둘레길'이 장성 힐링 관광의 매력을 한층 더해주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홍길동 테마파크 바닥 분수.

홍길동 테마파크 선비 체험

라면 금세 알아챘겠지만, 이 지역 이름이 '필암'인 이유다.
맥호리를 따라서 맥호2리 경로당 쪽으로 들어가면 산 아래 안온한 마을 풍경이 펼쳐진다. 왼편으로는 아직 완전히 자라나지 않은 푸른 벼 잎들이 조종히 바람에 흔들린다. 삼거리

환우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병원 부모님을 모셔도 좋은 "동행요양병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치료실 운영
중풍재활 / 인지기재활 수술후 재활

요양병동 운영
일반요양 / 전담간병인실운영 (24시간 간병인 상주)

한의 집중치료
침, 뜸, 부항, 약침, 물리요법 등의 치료실 운영

의학, 한의학 협진

중추신경계 재활치료 | 수술 후 재활치료 | 근골격계 통증치료

면회공간
환우분의 만남의 장소가 병원1층에서 면회와 운동 카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신체프로그램, 인지프로그램, 직업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내 생활공유
환우분의 근황 및 일상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동행요양병원은 "환자의 안전"과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입니다.
| 인증기간 | 2020.10.19 ~ 2024.10.18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26 | 062) 720-2000